



‘프랑스 그랑크뤼 + 포르투갈 최고 와이너리의 만남’

크리세이아

Chryseia

지역	포르투갈 > 도우로		
포도품종	토리가 나시오날 70% 토리가 프란카 30%		
알코올	13.5%	용량	750ml
시음 적정 온도	15-18℃		
테이스팅 노트	블랙 체리, 장미향과 삼나무향을 풍기며 훌륭하게 숙성된 비단같은 탄닌과 긴 여운을 주는 지속적인 아로마는 매우 부드러워 와인의 우아함을 한층 더 높여 준다.		



제품설명



2014년 와인 스펙테이터 TOP 3로 선정된 크리세이아는 포르투갈 와인의 우수성을 본격적으로 알린 와인이다. 2000년 첫 빈티지 출시, Chateaux Cos d'Estournel 의 오너이자 와인 메이커 프랏츠 가문의 '브루노 프랏츠' 가 보르도 블렌딩 스타일로 심혈을 기울여 출시한 와인이다. "크리세이아"는 그리스어로 "황금"을 의미하며 이는 포르투갈 "두오로 (Douro)" 지역의 어원인 "황금"과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.

※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,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※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